대생 인수 "약인가? 독인가?"

한화, 대한생명 인수 확정 … 지분 51% 8236억원에 매각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해 보험업계에 진출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9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을 대생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 표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대생이 보유중인 63빌딩과 신동아화재 주식(지분율 66.3%)도 함께 인수함으로써 생명·손해보험업에 동시 진출하게 된다.

한화는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생의 기업가치를 1조6150억원으로 평가해 지분 51%의 인수대금으로 8236억원을 제시했다.

2차례에 걸친 재협상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금액이 1조500억원에서 1조5200억원, 1조6150억원 등으로 높아졌으며 매각대금도 25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한화는 인수대금 중 4118억원을 본계약 체결 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년 후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순영 전 회장 관련 세금문제 등 풋백옵션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화컨소시엄은 한화그룹이 63%, 일본 오릭스가 30%,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은행이 7% 등의 투자비율로 참여키로 함에 따라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증권, 한화유통 등 한화그룹이 우선 26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대신 대생을 인수한 후 2005년 말까지 그룹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해야 하며, 한화계열에 편입되는 대생은 3년간 계열사 신규자금지원이 금지되고 2대 주주인 예보에 감사 및 이사 선임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방어벽(파이어월)을 두는 조건으로 한화로의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한화의 대생 인수는 승인에 필요한 재적위원 과반수(5명)의 동의를 가까스로 얻어내는 진통을 겪었는데, 일찌감치 가격문제를 지적해오던 어윤대 위원과 유재훈 위원,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한 조용완 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쟁점인 가격조건과 관련해 두 위원은 대생의 기업가치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화가 제시한 가격에 조기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이에 정부는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의 실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기업가치 1조6150억원은 상한선을 웃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린치는 대생이 향후 4-5년간 매년 7000억-8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가치를 1조2000억-1조6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메릴린치는 또 한화의 최종가격조건은 그간 전세계 60여개 투자자들과 접촉한 결과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대생의 기업가치를 2001년 말 최초 투자제안서에 7000억원을 제시했다가 9개월 사이 1조6150억원까지 끌어올렸는데 대생의 경영호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좀더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진행한다면 좀더 나은 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여력이 좋지 않아 앞으로 대생 인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5>